

“강한 타이거즈 만들고 후배들에 ‘가을 DNA’ 심겠다”

KIA 최형우의 2024 시즌 포부

끝을 걱정했던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KIA의 호주 캔버라 스프링 캠프가 1일 시작됐다. ‘사령탑 약재’로 외부는 어수선하지만 2024 시즌에 대한 선수들의 기대감은 크다.

KIA는 빅리그 경험이 있는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로 새 판을 썼고, ‘영간’들을 호주리그와 미국 드라이브 라인으로 보내 마운드 힘을 키웠다.

타선의 물음표도 사라졌다. 지난 시즌 KIA는 가 공할 만한 폭발력을 보여줬지만 ‘부상’ 약재에 시달렸다.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했던 나성범, 박찬호와 시즌이 끝난 뒤 손가락 인대를 다쳤던 김도영까지 ‘부상병’들이 모두 호주에 있다. 새골 분쇄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던 ‘최고참’ 최형우까지 정상적으로 캠프를 시작하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위의 팀, 베테랑의 경험과 무개감이 중요한 만큼 최형우에게 시선이 쏠린다. 최형우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2024 시즌이다.

부상 순간을 돌아보면 아찔했다. 9월 26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최형우는 1루로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루수 박병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부러지지 않은 이상 무조건 경기를 뛴다”고 말해 왔던 최형우는 앰블런스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좌측 새골 분쇄골절 및 견쇄관절 손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최형우는 “야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넘어지는 순간 으드득하면서 뼈 소리가 크게 났다. 소리를 듣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며 부상 순간을 설명했다.

엄살 없는 최형우에게도 힘든 부상, 마음도 힘들었다.

지난해 5강 싸움 한창일 때 부상 이탈 인생 끝난 듯 절망 필요할 때 해결할 자신 있다...타이거즈 질주 기대하시길

최형우는 “경기의 일부니까 부상을 당한 상황은 상관없는데, 팀이 5강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많이 아쉬웠다. 끝까지 해보고 떨어졌으면 덜 아쉬울 건데 해보지도 못하고 응원만 하는 상황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새골 고정술을 받고 오랜 시간 병원 생활을 했던 최형우는 야구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TV를 통해 그라운드를 지켜봤다.

최형우는 “지명타자 하면 옆에 서서 경기 보는데 그것보다 100배는 더 응원한 것 같다. TV랑 대화를 했다. 나 혼자서 ‘거기서 그걸 왜 쳐냐’, ‘그걸 여기서 왜 던지냐’ 이런 말을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했다”며 “진짜 팬심이라 딱같았다. 혼자 3시간 동안 그렇게 야구를 보다가 이기면 안 좋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괜찮았다. 그런데 팀이 지면 누가 연타석 홈런을 치든 말든 상관없이 짜증이 났다.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도 시원찮은 판에 중요한 상황이나까 더 그랬다”고 팬심으로 야구를 지켜봤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팬들의 사랑을 진하게 느낀 시간도 됐다.

최형우는 “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꼈다. 내가 SNS를 안 하는데 와이프를 통해 팬들의 응원을 많이 들었다.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도 모두 안부를 물어보셨다. 감사하다. KIA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강한 타이거즈를 만들고 성적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최형우는 “누가 봐도 우리 선수들이 매년 성장하는 게 느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발전하고 있다. 도영이, 찬호를 봐도 이 정도 기록 내면서 웨도에 오른 선수를 두 명 키운 것이다. 우성 이도 있고, 창진이도 잘하고 있다”며 “가을 야구가 목표인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목표다. 은퇴하는 날까지 후배들과 가을 야구하면서 마인드, 행동 등 강팀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을 DNA를 후배들에게 심고 싶은 최형우는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시즌 만족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잘한 거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비하면 기록도 그렇고 크게 뛰어나지 않았다. 팬들 기억에 남게 한 번씩 친 거지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다”며 2023 시즌을 평가한 최형우는 “나는 팀을 끌고 갈 만한 위치나 나이가 아니다. 성범이, 현종이 같은 베테랑이 끌고, 밀고 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고문 같은 역할이다. 내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안 된다. 그건 좋은 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할 때 한 번씩 해줄 자신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누가 끌고, 앞에서 해줘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다. 내가 놀라운 성적을 만들 때도 팀은 9등, 최하위를 하기도 했다. 자기가 잘하면 기록은 따라온다”며 “타자들이 아프지 않고 시작한다면 잘할 것 같다. 지난해 2등하고 6.5경기 차이인데 외국인 투수 비교하면 이 부분에서 잘 안됐다. 외국인 투수들이 조금만 잘 된다면 야수는 걱정 없다. 완벽하다”고 올 시즌 KIA의 질주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빠른 선제골... 4강 '지름길'

3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리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이강민이 사우디 수비와의 몸싸움에 밀려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 3일 오전 호주와 8강서 격돌 손흥민·이강민 등 주축 선수 4경기 풀타임 빠르게 득점해야 경기 수월하게 풀어갈 듯

‘다리 풀리기 전에 골 넣고 끝내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눔 스타디움에서 호주를 상대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두 번째 고비인 호주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태극전사의 ‘체력’이다.

클린스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8강에 올랐다.

반면, 호주는 한국보다 이를 먼저 16강전을 치렀고, 승부도 90분 안에 끝났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4-0 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16강전이 끝난 시각을 기준으로 호주는 8강전까지 122시간, 한국은 68시간 30분의 여유만 주어졌다.

한국은 고작 이를 동안만 휴식하고 그라운드로 나와 이들을 더 한 승부를 상대해야 한다.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토너먼트에서 이 정도 휴식 시간 차이는 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득점해야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로 보인다.

특히 높이는 좋지만, 발이 느린 호주 수비진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엔 손흥민 등 스피드가 좋은 공격수들이 제적이다. 이들의 견각이 힘이 빠지기 전에 득점을 올릴 필요가 있다.

박찬하 해설위원은 “경기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공격수들이 상대 뒷공간으로 스피트를 많이 할 수 있는 초반에 승부를 보는 게 나을 것”이라면 “초반에 승부를 보지 못하고 경기가 늘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호주의 수비력을 경계하면서 선제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선제골을 넣는다면 사우디아와는 차이가 다른, 숨 막히는 수준의 수비를 펼칠 것”이라며 “선제 실점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선제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최전방 공격수들의 에리함이 다른 우승 후보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체력이 좋은 수비라인과 더불어 탄탄한 미드필더진은 강점으로 꼽힌다.

189cm, 74kg의 체구를 자랑하는 짙은 어바인이 주로 왼쪽 미드필더로 호주의 공격을 지휘한다.

한국은 호주와 역대 전에서 8승 11무 9패로 열세에 놓여있다.

다만 최근 2경기에서는 1승 1무로 한국이 앞선다. 최근 맞대결인 2019년 6월 부산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한국이 1-0으로 승리했다.

호주에 대한 마지막 패배가 뼈아프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로 저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손흥민이 후반 45분 1-1로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으나 결국 패배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연합뉴스

‘승부차기 선방’ 조현우 16강전 ‘베스트 11’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 진출에 큰 공을 세운 골키퍼 조현우(울산·사진)가 대회 16강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2명, 한국과 카타르, 요르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란이 1명씩이다.

AFC는 1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에서 열린고 있는 2023 AFC 아시안컵 16강전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로는 골키퍼 조현우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조현우는 지난달 31일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두 차례나 상대 키커의 슈트를 막아내며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다.

공격진에는 아크람 아피프(카타르), 우에다 야야세(일본), 야잔 알나йма르(요르단)가 베스트 11에 뽑혔고, 미드필더로는 마틴 보일(호주), 구보 다케후사(일본), 수파축 사라차트(태

국), 아지즈베크 투르군보예프(우즈베키스탄)가 선정됐다.

또 마이쿠마 세이아(일본), 해리 수타(호주), 에산 하지사피(이란)가 16강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수비수로 평가됐다.

8강에 오른 나라 중에서는 타지키스탄 1명도 뽑히지 못했고, 16강에서 진 나라는 태국이 유일하게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대회 준준결승은 2일 타지키스탄과 요르단 경기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페퍼스, 이기는 법을 잊었다

현대건설에 1-3으로 패... ‘18연패’ 구단 신기록

페퍼스가 18연패하며 팀 단일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31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현대건설과의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세트 포인트 1-3(20-25 22-25 25-22 17-25)으로 패했다.

페퍼스는 4라운드에 이어 이번에도 현대건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페퍼스는 지난 19일 현대건설과의 4라운드 마지막 대결에서 기록했던 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타이 기록 17연패를 깨고, 18연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페퍼스는 2승 23패, 승점 7로 여전히 최하위. 반면 7연승을 기록한 1위 현대건설은 현재 20승 5패, 승점 61이다. 이날 경기로 2위 흥국생명(19승 6패·승점 53)과의 점수도 8점 차로 벌렸다.

페퍼스는 1세트부터 흐름을 뺏겼다. 5-14까지 벌어진 격차를 박정아, 아스민이 활약하며 점차 따라갔다.

10-19 상황에서 필립스의 속공과 이한비의 연속 득점에 이어 상대범실로 연속 4득점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지만, 페퍼스는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는 현대건설에 1세트를 20-25로 내어줬다. 2세트에선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으나 뒷심이 딸렸다. 페퍼스는 2세트 14-16에서 상대

범실과 야스민, 필립스의 블로킹 득점으로 16-16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하며 후반 한 점 차 승부를 펼쳤지만, 접전에서 버티지 못하고 현대건설 양호진과 위파위의 연이은 득점으로 22-25로 아쉽게 세트를 내줬다.

의지를 다진 페퍼스는 3세트에서 야스민을 주력으로 세트점수 1점을 따냈다. 페퍼스는 20-13으로 앞서다 23-21까지 추격 당했지만 야스민의 백어택과 박정아의 킥오픈이 성공하면서 3세트를 25-22로 마무리했다.

4세트에선 현대건설 양호진과 정지윤, 모마의 공격이 이어지며 페퍼스는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페퍼스 야스민은 이날 경기에서 양 팀 선수 합해 가장 많은 29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검증된 공격수가 있지만 패배를 끊어내지 못한 페퍼스에 ‘연결’이 속제가 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